

명대의 중-한 조공 관계

(Donald N. Clark, "Sino-Korean Tributary Relations under the Ming", in CHOC, vol. 8)

중-한 조공 관계의 양식

한국은 조공국가의 모델: 신라 시대부터 중국의 제도를 자국의 필요에 따라 적응시키는 기술을 터득해 왔다. 고려 시대는 조공 관계의 특수 형태.

조선 시대: 조공 체제는 정치와 안보 메커니즘, 그리고 무역[호시(互市)]과 문화 전달 장치.

상호주의 원칙; 'to act like a loyal vassal state'(p. 273)

명-조선 관계: 초기 단계

고려와 명 건국: 공민왕(1330-74)의 원 견제와 친명 정책, 그러나 결국 실패. 공민왕 암살 후 우왕 때부터 명의 책봉, 조공 관계를 맺었으나 요동 문제로 불화. 이성계의 역성 혁명.

조선 초기의 명-조선 관계: 홍무제, 태조 이성계의 책봉 문제. 영락제와 태종 이방원 사이에 해결, 책봉-조공 관계 정상화.

조공 사절단

조선 사절단 [朝天使]: '1년 3공'(실제는 더 많은 횟수, ex. 1392-1450, 7공/1년) 다양한 사절단.

조공과 회사(回賜) [조공 무역]. 공로(貢路)와 체류[同文館], 교류.

명 사절단 [勅使]: 체류[慕華館]. 비정기적 파견. 정사에 내시가 많았음. 그 횡포와 정상화.

명-조선-여진 삼각 관계

조선과 여진족의 교제: 일종의 [준]조공 관계. 건주(建州) 여진과의 호시 관계.

명의 대여진 정책: 여진 지역에 여러 위(衛) 설치. 부족들 상호 견제.

명-여진 교제의 효과: 여진 부족장의 칭호. 명과 조선에 양속(兩屬) 관계, 명-조선 간의 갈등.

명-조선 관계의 문제점/논쟁점

책봉: 태조, 세조, 중종

조공 품목: 초기에 있었던 금, 은; 태종, 세종 대에 폐지. 인삼, 의복 등으로 대체.

인간 공물: 초기에 있었던 젊은 남녀; 영종(英宗)[正統] 원년[세종 17, 1435년] 이후 폐지.

도요토미 침략과 명-조선 관계

명의 구원군 [조공 관계는 일종의 안보 동맹 관계], 대일 교섭과 명군의 만행.

명의 몰락

명의 '재조지은(再造之恩)'과 건주 여진의 흥기. 광해군(재위, 1608-23)의 균형 외교.

반대파의 인조 반정: 청왕조의 성립에 대한 친명-반청 정책

1621년 라오둥 도사(都司) 모문룡(1576-1629)이 가도(柵島, 평북 철산군)로 피신, 주둔

<= 1627년 정묘호란의 원인 제공

1635년 병자호란 후 청과 책봉-조공 관계 "accepting the state of vassal to the Ch'ing"(p. 300)

존명배청 의식, 명 년호(만력) 사용, 청과의 밀접 관계 이외에 조선의 국제적 고립